

동라(銅鑼)

동라는 주로 다도(차노유)에서 사용되는 소형 금속제 정입니다. 다회(차모임)에서는 주최자인 주인이 손님을 다실로 맞이하는 신호로 동라를 울립니다. 음색은 다회에 어울리는 명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낮고 잔향이 오래 지속되는 소리가 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음색은 구리, 주석, 납, 은을 정밀하게 배합한 합금인 '사하리'가 만들어냅니다.

동라는 로스트 왁스 기법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주형 안 금속이 식으면 주형을 부셔서 동라를 꺼내기 때문에 동라 장인은 매번 처음부터 새로운 주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형에서 꺼낸 동라는 표면을 정교하게 연마하고, 때로는 망치로 두드려 완성합니다. 동라의 크기나 두께, 장식에 따라 음의 높이와 음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동라는 나무로 만든 틀인 '도라카케'에 매달아 사용합니다.

동라 제작은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가나자와시 출신의 3대 우오즈미 이라쿠(1937~)의 동라 제작 기술이 높게 평가되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3대 이라쿠는 동라 제작 기술로 1955년에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조부, 제 1대 우오즈미 이라쿠(1886~1964)에게 배워 동라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